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나이든 여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

김명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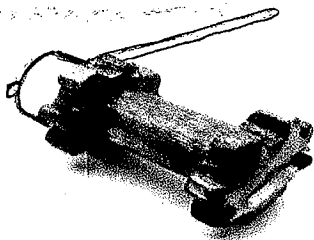
오십이 된 영화배우 재클린 비셋은 한 인터뷰에서 "젊은 시절에는 그저 용모로 평가되지만 나이든 여자는 폭넓은 경험, 이해심, 포용력 등 스스로를 어떻게 길들이고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여자, 혹은 심술궂은 여자로 평가되죠." 라고 했다. 젊음은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것이고,

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는 재미도 쏠쏠하다. 어릴 때 좋아하던 떡볶이도 계속 먹지만 청국장의 깊은 맛도 이해하게 되었고 젊을 땐 느끼하게 들리던 나훈아의 노래도 절절히 들린다. 청바지도 가끔 입을 수 있고, 모피 코트를 입어도 어울릴 나이라는 게 행복하다.

식욕이나 호기심은 줄지 않았지만, 웃는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많다. 아마도 수많은 삶의 얼굴 가운데 밝고 유쾌한 면만 가려서 볼 줄 아는 지혜를 얻어서일 것이다. 그건 교과서나 학원에서 배우는게 아니라 연륜, 그야말로 밥그릇 수의 힘에서 나온다.

거울에 비친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, 남에게로 시선을 돌려 자신의 따스한 손을 내밀어줄 수 있을 때 '잘 늙어 간다'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야 얼굴의 주름도 고단한 삶의 증명서가 아니라, 오랜 세월 공들여 만든 우아한 작품처럼 보이리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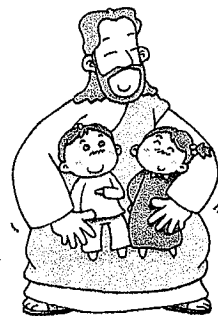
◀그땐 그랬지▶ 『실패 차』
장난감이 흔치 않던 그때에는 주변의 모든 물건들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놀았습니다. 어머니의 필수품인 "실패" 또한 그대로 둘 수 없었지요. 고무줄을 실패 가운데 구멍으로 빼내어 짧게 자른 양초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끼웠습니다. 다른 쪽 고무줄엔 조금 긴 나무를 끼워 여러 번 감았다 놓으면 천천히 굴러갔습니다. 실패양쪽에 칼로 톱니바퀴 홈을 팠었지요. 그러면 교과서, 지우개, 필통등 어떤 장애물도 거침없이 넘을 수 있었습니다. 풍요롭기 그지없는 오늘날에도 학교 다닐 정도면 뭐든지 만들어 놀 줄 알던 그 시절이 가슴시리도록 그리웁니다.

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"예수!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" (요13:35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6권 29호	기초성경공부아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5년 7월 10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신앙생활의 미신적 특징 10가지
(야고보서 2장 21-22절)

이한규



- 말만 앞세웁니다.
자기가 제일 신령한 사람이라는 어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.
- 한이 많습니다.
신앙생활을 한풀이의 통로로 사용하려는 자세도 없어야 합니다.
- 싸우려고 듭니다.
신앙을 전투로만 생각하고 이해와 용서를 모른다면 문제입니다.
- 두려움과 정죄감을 조장합니다.
'저주'라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는 분은 위험합니다.
- 어거지가 많습니다.
신앙은 '상식을 초월하는 것'이지만 결코 '물상식'은 아닙니다.
- 가정을 경시합니다.
사명을 이유로 가정을 핑개치는 모습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.
- 외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.
내면의 인격적인 행복이 없는 축복은 허무한 것입니다.
-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.
신앙을 '신기한 것'으로 아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입니다.
- 영동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.
앞선 사람들은 인정하기보다는 비판하기 좋아합니다.
- 질서의식과 공동체의식이 빈약합니다.
이기주의와 무책임은 신앙의 큰 적입니다.

신앙이 생활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창조해내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.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늙어 갈수록
기도를 더 많이 하라
그러해야 신령한 일에
냉냉해 지지 않는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는
가까이 말라
모진 농 옆에 있다가
벼락맞는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갈 이
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		
용 서 의 선 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 찬 송 Hymn	34장	다 갈 이
*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37 (사 40)	
* 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찬 송 Hymn	135장	
기 도 Pray		김교섭 장로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다니엘 6:19-23	인 도 자
성 가 대 찬 양 Choir		나무십자가성가대
설 교 Sermon	선지자 시리즈(5) 골센 의지 다니엘(II)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389 장	다 갈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갈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7월의 예배위원◆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주방봉사
3	현석호	김종우	10구역
10	김교섭	김종원	1구역
17	김순자	김진근	
24	김영길	마경춘	2구역
31	김종건	민광호	3구역

◆7월의 교회력◆

	주 일	예배와 모임
3		구역예배(8). 겨울심방
10	성문밖주일	믿음의어머니기도회(12) 학생부Camp(11-13) Concert(16)
17	교회창립기념	전교인 운동회
31	이삭줍기주일	

2005년 교회생활	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.
1. 성경 1독만 하기(하나님 사랑)	*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.
2.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(이웃 사랑)	
3. 처음 만난 날 처럼(교우사랑)	
주일예배. 아동, 학생: 낮 12시	수요예배: 7:30 pm
새벽기도회: 금 5:55	청년부: 토 저녁 4시

- 교우소식
*<변호사 임관> 이기동 성도. 호주에서 변호사 임관식 마치고 귀국.
- 오늘은 "성문 밖 주일"로 지킵니다
* "나만 잘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거!" 시골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어느 분의 철학입니다. 무슨 이유로 오늘의 큰 은혜를 우리교회에 주셨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. 그러나 한가지, 개척교회를 해 보게 하셔서 개척교회의 아픔을 잘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오늘 헌금은 우리교회로 드리지 마시고 주변 어려운 교회에 직접 보내십시오.
- "믿음의 어머니 기도회" : 7월은 다음주 화요일(19일)로 한 주간 연기합니다.
- 다음 주일은 전교인 체육대회 <오전 11시, Avondale College Stadium>
*공 갖고 운동장에서 놀던 여고시절 체육시간, 적도마처럼 뛰던 학창시절 이후 언제 그런 마음으로 즐거웠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. 교회생활, 방학... 감사와 즐거움으로 보내는 다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.
*<식사>: 구역별 "김밥" -학생부, 청년부를 위해 조금 넉넉히 준비해 주십시오.
- "아버지,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Concert" <16일(토) 6시. Auckland 음대 Hall>
*이번 주 토요일 밤에는 우리 아이의 수줍어하며 자랑하는 숨씨를 흐뭇함으로 즐겨 보세요. (Symonds Street)
- 유치부 예배(PreSchool): 학교 입학전의 자녀를 위한 주일학교를 다음주일부터 별도로 드립니다. <장소> Hall(room) <시간> 12시
- 학생부 겨울수련회 <11일(월)-13일(수). Houghtons Bush Camp>
*출발, 귀가일의 Pick Up을 위한 차량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(문의:김미애 집사)
- "전교인 체육대회"를 위한 구역장 모임: 예배 후 교회에서 5분 모임

◀착한 시인들▶ 보 리 발 박화목

보리밭 사잇길로
걸어가면
뉘 부르는 소리있어
나를 멈춘다
옛생각 외로워
취바람불면
고운노래
귓가에 들려온다
돌아보면
아무것도 보이지 않고
저녁놀
빈 하늘만
눈에 차누나

살아 있음이 더 고통인 피난시절에는 두고 떠나 온 고향 그리움이 유일한 희망이고 위로였을 겁니다. 님을 부르는 소리까지 그려낸 시인도 두고 온 황해도 사리원의 보리밭 풍경으로 그리움을 삭였을 테지요..
누구에게나 새겨져 있는 고향의 보리밭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푸르른 색을 입고 바람에 건들거리는 배경으로 남아있습니다.
시인의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다. 끝내 그 고향의 '보리밭'과 '과수원 길'을 놓지 못하고 평생 지내다 이제야 영혼으로 그 고향을 찾아갔을 시인의 한 맺힌 그리움에 마음 숙연했습니다